

사천N

SACHEON MAGAZINE

2020. 2월 (통권286호)



그래 괜찮아!

그것은 마치 흑백영화의 정지된 화면 같다.

진눈깨비 흩날리던 마산역, 자꾸만 뒤돌아보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던 딸의 뒷모습은 그대로 정지된 채 지금도 나를 슬프게 한다. 스스로 지탱하고 서 있기조차 버거웠던 나, 나를 미워하며 서 있었던 그 영원 같았던 순간...,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떠나며 아이는 또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 것이던가.

지난 시간은 다 용서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긍한다. 어떤 상처이든 안고 쓰다듬어야 한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나 같이 늦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안다는 사실에 감사할 일이다. 공지영 작가의 말처럼 “괜찮아 괜찮아” 하며 나를 쓰다듬어야 한다. 어찌 아니겠는가. 자신과의 눈물의 화해 없이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을 것이던가.

돌이켜보면 누구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 철없고 미련했을지라도 그때는 최선이라 생각했었고 또한 충분히 수고로웠다. 설령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인생의 답은 울며보며 스스로 찾아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나만의 법(진리)이 꽃으로 피어나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삶인 이유는, 그 래도 이 길 위에 영원의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홍옥숙

1953년 부산 출생.
1989년 월간 수필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 펜클럽 회원,
사천문인협회 회장,
박재삼문학제운영위원장.

CONTENTS



- 04 VISION** 04 특집 - 새벽을 여는 사람들
08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09 의회소식 - 시정질문
10 의회소식 - 누구신가요 “이삼수 의장”
- 12 STORY** 12 사람&단체 -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조영숙 회장”
14 마시뜨라 - 바지락과 갯불
16 동네한바퀴 - 사천실내수영장
18 우리 사천은 - 부활의 도시
20 핫이슈 - 스무살 청년이 된 삼천포제일병원
24 연재코너 - 우리문화유산둘러보기
- 어때요? 항공산업-2020년 1월
- 길이름따라사천이야기
: 온정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영남삼룡’
- 31 WITH** 31 생활정보 - 시정 알람마당
33 문화 - 연극, 영화, 공연 소식
34 건강 - 의학상식 ‘겨울철 심혈관질환 주의보’
35 독자마당 - 이용호 ‘다짐’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해수가 가득한 새벽 3시. 남들은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임에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겨울의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생업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총성없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 거친 파도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조업한 생선을 경매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잡아온 해산물을 경매하기 위해 분주한 삼천포수협 직원들.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뒤섞인 공판장은 삶의 현장이자 사람의 향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활어·선어로 가득찬 배, 선원들의 꿈 영글다

삼천포항에 처음 접안한 배는 유성호다. 선장과 선원들이 며칠간 조업한 생선들을 하역하고 있었다. 긴 조업 탓에 선원들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선이기에 그간의 긴장감은 희열로 바뀐 가운데 이 순간이 지나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행복은 배가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 대한 댓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에 긴장감이 흘렀고 제값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 짧은 기도도 잊지 않았다.

경매,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다

새벽 4시. 하역작업을 마친 각종 해산물들이 경매장에 모였다. 펄떡이는 우럭은 물론 종류도 다양한 해산물들이 주인을 찾기 위해 꽃단장하고 줄지어 놓여 있다. 이제부터 경매사들의 몫이다. 그들의 손짓 하나에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애간장은 타들어 가고, 싱싱한 해산물을 싼값에 낙찰받으려는 상인들의 눈치싸움도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다. 잠시 뒤 경매사들의 알 수 없는 말들과 중매인들의 손놀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졌다. 경매사의 추임새에 맞춰 낙찰된 활어들은 경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활어차로 옮겨지고,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린 상인들도 원하는 것들을 제값에 사자 얼굴엔 웃음기가 돌아났다. 유성호가 잡아온 조피볼락도 경매에 들어갔다. 한 눈에 봐도 싱싱하고 굵은 생선이기에 제값을 받을거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뿔싸!! 같은 어종이 많이 출하되면서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 한순간 실망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유지했다. 김보 선장은 “바다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선이든 팡이든 모든게 용왕님 마음 먹기 나름”이라며 “오늘 못잡았으면 내일 잡으면 되고 가격이 낮으면 내일 잘받으면 된다”며 껄껄 웃는 모습에서 진한 바다 사나이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이날 이곳에서 경매된 활어의 총 위판금액은 5850여만 원으로 평소 4000여만 원에 비해 약 1800여만 원이 많았다.





위판장 상인들이 웃는다

경매사들의 손짓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들은 인근 상인들의 몫이다. 이들 상인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좋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경매가 끝난 해산물들은 상인들의 가게로 옮겨진다. 삼천포수협 활어센터에는 수십개의 점포가 모여 있다. 새벽 경매를 통해 구입한 싱싱한 해산물들이 종류별로 분류돼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상인 이모(65·여) 씨는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다. 수십 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누구보다 삼천포항에서 잡히는 해산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1 삼천포수협의 새벽
- 2 만선으로 삼천포항으로 회항하는 고깃배
- 3 삼천포항 전경
- 4 어판장 풍경

그는 “삼천포항 인근은 청정해역인데다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생선뿐 아니라 해산물이 싱싱하고 맛있다”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천바다케이블카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천을 찾으면서 덩달아 수산시장을 들리는 분들이 많고 구입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에 손상가는 일이 없도록 상인들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음 좋겠다”고 말했다.

하역·경매·위판의 중심 삼천포수협

삼천포수협은 불 꺼진 삼천포항을 밝히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원대의 위판고를 올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한때 삼천포수협은 전국 3대 수협으로 손꼽힐 정도로 잘나가던 때도 있었다. 연안에 고기들이 넘쳐나면서 선어나 활어의 위판량이 급증하고 덩달아 위판고도 증가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영원히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삼천포수협은 2000년 이후 큰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 등 각종 약재로 인해 농·축·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연안어업의 의존율이 높은 삼천포수협은 어선감축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수협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민들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임금동결과 과감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난과 직전의 수협을 정상화시키는 데 전 직원들이 동참했다. 그 결과 2012년 1245억원이란 위판실적으로 수협이 설립된 이래 첫 1000억원대 목표를 달성한 뒤 지난해에는 1445억원이란 최고의 위판고를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삼천포수협은 연안어장의 고갈로 인해 선어나 활어의 위판액이 줄어들자 수협이 직접 선단과 ‘매취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다른 수협으로 위판되는 각종 선어와 활어들을 삼천포수협에서 위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위판액 증대에 큰 몫을 하기도 했다.

삼천포수협의 위판고 증가는 침체된 삼천포항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수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동지역의 경우 수협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드는 곳.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언제나 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활기가 넘쳐난다.



SACHEON NEWS

읍면동 소식

남양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간담회 실시



남양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2명을 모시고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벌용동 자원봉사회 장애아동 대상으로 급식봉사 실시



사천시 벌용동자원봉사회(회장 김현희)가 1월 15일 사천시 장애인 열린학교의 장애아동 8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사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혈관튼튼 건강교실을 운영



사천시보건소가 12월까지 마을경로당, 복지회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사업 및 혈관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사천시체육회 생활체육동계스포츠 체험 진행



사천시체육회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원성산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안전사고 예방과 유대감 조성을 위한 '2020 사천시체육회와 함께하는 생활체육 동계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사천공항 내 아동미술 및 성인문해 작품전시회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재훈)과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조희형)가 사천공항 내에서 아동미술 및 성인문해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서포면 「청죽회」 신년 소망기원제 및 떡국 나눔행사 개최



서포면 민간단체인 청죽회(회장 송근석)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신년 해맞이 행사와 함께 서포면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망기원제」를 사천대교 휴게소에서 개최했다.

사천시 안전보안관 모집



사천시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천시 안전보안관'을 오는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SACHEON NEWS

시정질문



최인생
(가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

“사천공항 활성화와 국제공항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사천-김포 노선 현행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손실보전금 지원되게 하겠다. 사천-진주 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항공이용객을 서부경남으로 확대하고, 저가항공사 유치에도 힘쓰겠다. 다만, 사천공항을 국제공항화 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동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기회가 적은 사천읍권역에 대한 대책은?”

큰 공연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나 ‘우수문화예술 공연’ 등 소공연 위주로 읍면권역 문화예술 행사를 늘려 나가겠다. 이 과정에 항공우주테마공원 무대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관내 허가된 푸드트럭의 경우 업종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영업장소를 옮겨 다니도록 해도 되지 않는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는 사천시 관내 조례 등에 따라 일정한 곳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 영업의 경우 푸드트럭 입점자 모집 공고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특정한 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



전재석
(라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

“동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추진 중인 송포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바다케이בל카와 연계한 4개 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등이 이뤄지면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발생하는 빈집은 근로자, 취약계층을 연계한 복지사업에 공급하겠다.

“동지역 중·고등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은?”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지금도 시세 11%를 쓰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증가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의 4년제 과정 개설 방법을 검토하겠다.

“바다케이בל카와 연계한 특화된 관광정책이 있는가?”

케이בל카 개통 후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접목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초양 아쿠아리움 건립, 실안관광지 호텔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사천’ 하면 떠올릴 대표음식도 발굴해 홍보해나갈 것이다.



구정화
(가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택시 홍보대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시 의향은?”

우리시에는 택시봉사회가 구성돼 있으나 지난 몇 년 간 활동이 뜸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시의 주요행사 홍보 및 관광객 안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있는가?”

우리시도 도시재생사업과 중심지활성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노력 중이다. 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 변동사항, 소비자욕구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세우겠다. 그 외 특화거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산불감시원들을 위해 유류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할 의향은?”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시도 유류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식비, 간식비의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로 지금이 어렵다. 점차적으로 처우 개선 해나갈 것이다.

반전 인생, 역전 인생의 주인공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



반전 인생, 역전 인생의 주인공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은 반전 인생,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다.

사천과 통합되기 전인 지난 1958년 삼천포시 동동에서 태어나 50여 년을 삼천포 지역에서만 살아온 '삼천포 토박이' 이삼수 의장.

이 의장은 삼천포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할 정도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루 세끼,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다. 중졸의 학력이 고작인 그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구두닦이를 비롯해 음식점 배달, 심부름꾼, 막노동 등 몸으로 힘으로 하는 일이 전부였다. 어린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이 의장은 사회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이 의장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무렵, 그는 느닷없이 정치계에 발을 내디뎠다. 아내와 아들 등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위에서 도움을 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위의 만류를 과감히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출마, 당당히 제4대 시의원으로서 당선됐다. 5대·6대에서도 당당히 의회에 입성했으며, 8대에서는 의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역전이고 반전인생인 것으로서 이 의장이 걸어온 인생길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한 역사'를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의장은 남부권 제2관문공항 의제화와 사천공항 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도 관문공항 여론화를 위한 세미나를 유치한다던지 의회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던지 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안건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공동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이 의장의 계획이다.

특히 이 의장은 삼천포항과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다. 수산물 위판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등 어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다. 어자원 고갈로 인한 고충을 사천시와 함께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을 한다.

이 의장은 신의(信義)와 신용(信用)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웬지 모르게 이 의장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이 의장은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 집행기관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기술적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시민이 더 행복한 사천을 만들고 싶다.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N 인터뷰

사천시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조영숙 회장

사천시새마을부녀회를 6년 째 이끌어가고 있는 조영숙(61) 회장.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추진해 나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선한 첫인상이며 조곤조곤한 말투는 영락없는 여잔데, 조직을 위하고 지역과 지역민을 아끼는 마음가짐은 어느 대장부 못지않다.

누구나 500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가정보단 조직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다.





그가 이 단체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6년, 아파트 새마을부녀회 총무를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25년 째 몸 담고 있다. 그는 “한 단체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부녀회만의 장점이자 매력인 ‘국민단체 1호 조직단체란 자부심과 함께 어떤 일을 하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내는 능력’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조직사랑은 남다르다. 새마을 단체는 ‘한 물건 조직’이란 주위의 비아냥거림에 대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라 잘라 말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깊이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조직이 쉽게 허물 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변화하며 더 튼튼한 조직으로 거듭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새해 떡국 나누기를 비롯해 노을 마라톤 음식 봉사, 독거노인 목욕시키기, 시민시장실 방문하기, 마을벽화그리기, 이·미용 봉사, 마음 담은 고추장 만들기, 제야타종 어묵탕 나누기, 에너지절약·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김장나누기봉사, 목욕봉사, 풀베기, 복지관 급식, 장항금기탁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나누기, 시민체육 행사시 식사제공 등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새마을부녀회

가 빠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존재감은 대단하며, 그 중심에 조영숙 회장이 있다.

그는 2015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직을 위해 순수한 내 뜻이 반영되지 않을 때와 소통 부재로 오해가 생길 때는 가끔씩 후회를 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 오직 조직을 위해 할 일을 했을 때, 새마을 가족들의 박수와 정이 담긴 격려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시원 섭섭하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다 보니 마을별 부녀회장의 나이가 많고, 대부분이 15년 이상 직을 수행함에 따른 부작용과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임 횟수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고 회칙 개정 등을 통해 보다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회장으로 남고 싶을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조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온 진정한 봉사자였다고 새마을 가족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조영숙 회장.

그가 있어 사천시새마을부녀회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사천의 해산물,
전국 입맛을 사로잡다

- 바지락·개불 -



사천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있다. 수려한 경관은 덤이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각종 해산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질에 갯벌이 발달돼 있다 보니 다양한 수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중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을 꼽으라면 바지락과 개불을 들 수가 있다.



풍부한 조갯살과 맛도 좋은 바지락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중 하나로, 남해안 지역 어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바지락'이라 불리던 것이 줄어서 '바지락'이 되었다. 바지락의 원래 이름이 바지라기인 것이다. 경상도·동해부근에서는 '뺨지락', 통영·고성·거제에서는 '반지래기', 이외에 인천이나 전라도에서는 '반지락'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페이루빈하자이(菲津濱蛤仔)'라고 부른다. 껍데기는 달걀모양 타원형으로 부풀어 오른 모양이며 딱딱하다. 표면에는 방사상의 무늬가 있으며 껍데기표면은 거칠고 크기·색깔·무늬·형태 등이 서식지에 따라 다양하다. 축수에는 돌기가 없이 간단하며 이빨이 3개 있다. 국을 끓이거나 젓갈을 담그거나 날것을 요리하여 먹지만 번식기에는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새우양식의 사료로도 이용된다. 3~4월이 되면 여름철 산란에 대비하여 크게 성장하는데 이때가 가장 맛이 좋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천합(淺蛤)이란 이름으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며 '살도 또한 풍부하며 맛이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칼슘, 철, 인, 비타민 B2가 풍부하며,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예로부터 황달에 바지락 끓인 물을 먹었다. 피로해소 및 숙취제거 식품으로 애용되며 조혈(造血)작용도 있다.



갯벌의 창조자 개불

개불은 겨울철 별미로 오독오독 씹히는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다. 그러나 평소 바다 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내륙 지방 사람들이 어물전을 구경하다 기겁을 하는 해산물에 있는데 바로 개불이다. 생긴 모양이 마치 큰 지렁이 같기도 하고 동물의 창자 같기도 해 몹시 징그러워 처음 마주하는 사람은 젓가락 가기가 쉽지 않다. 개불은 몸의 마디가 없이 하나의 원통 모양으로 된 특유의 조직 때문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또한 생개불은 콜라겐 함량이 높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글리신과 알라닌이 풍부해 일반 생선회나 조개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풍미가 있어 횡감으로 인기가 높다. 개불은 갯벌에 U자형 굴을 뚫고 이 구멍으로 해수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갯벌을 정화해 해양 생태계에서 매우 주요한 저서동물이다. 못생기고 특이한 모양 때문에 개불과 관련한 속담도 많다. 우리 말에 '개불상놈'이란 욕이 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을 이르는 이 욕은 '개 ○ ○ 같은 상놈'이란 의미이다. 조선 순조 때 문신 김려가 지은 '우해이어보'에는 개불을 '해음경'이라 쓰고 생긴 모양이 말의 음경 같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걸모습이 창자를 닮았다고 해서 '하이장(海腸)'이라 부른다. 개불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이 제철이다.

사천실내수영장

oh yes!

사천실내수영장

SACHEON INDOOR SWIMMING POOL

와우 ~ 수영장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50m 8레인으로 자유수영과, 강습반으로 초급, 중급, 상급반 그리고 걷기를 위한 레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레인에 대한 질서도 매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회원접수 안내

- 기존수강회원 재접수기간은 매월 21일~23일
- 신규수강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25일~27일
- 자유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21일~29일입니다.
접수기관외 등록불가하니 기간을 꼭 참고하세요.



김소나
제5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사천시민들을 위한 실내 수영장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은 삼천포종합운동장내에 있습니다.



이곳은 유아풀장으로

21m 3라인으로 수심은 어른들의 무릎 정도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아풀장에선 토요일 특별수업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11시에 모자수영교실과
 14:00 교정수업 입니다. 모자수영교실은 엄마와 자녀수업으로 만5세, 만6세 월강습회원의
 자녀와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이고, 토요일교정수업은 1주차:자유형, 2주차:배영, 3주차:평형,
 4주차:접영으로 교정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수영을 즐기시는 분이 한명도 없죠. 이유는

12시~오후1시까지 수질정화시간으로 입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시부터 18시 사이는 사천시대표 수영선수들의 훈련으로 인해
 자유수영레인이 다소 협소할 수도 있으니 수영장을 이용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또한 매시간 50분 수영후 10분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312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

수영 대회가 있는 날에는 맘껏 경기를 보면서 즐길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이나
 물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에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체력단련실인 헬스장 내부 모습입니다.
 넓고 깨끗하여 요가를 즐기시는 분도 간혹 보이기도합니다.
 헬스장 이용은 월회원에 한해서 이용료 10000원 추가입니다.



수영장의 샤워실입니다.
 다소 생소해보이는 체온유지탕이 이곳에선 인기가 가장
 많은곳입니다. 참,개인 사물함은 없습니다.



사천시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운행노선
 ● 총 4회(동지역 2회, 읍면지역 2회)

**“ 이렇게 깨끗한 수질과 환경으로 사천시민들에게 큰 인기장소인
 사천 실내 수영장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 ① 수영장 출발(08:00) → 수영장 도착(08:35)
 수영장(08:00) → 보람스토아(08:03) → 시외버스터미널(08:05) → 장미아파트(08:06) → 동림현대아파트(08:07) → 풍년슈퍼(08:09) → 목전빌딩(08:10) → 국민사안경(08:12) → 선구동주민센터(08:14) → 해태거리(08:15) → 대방초교(08:16) → 대방사거리(08:19) → 각산사거리(08:20) → 부두주차장(08:22) → 제일약국(08:23) → 우리은행(08:24) → 김영부외과(08:25) → 국민은행(08:27) → 천사약국(08:28) → 경남상가정류장(08:29) → 동금우체국(08:30) → 동금주공아파트(08:32) → 농협하나로(08:33) → 수영장(08:35)
- ② 정동풍정 출발(08:00) → 수영장 도착(09:45) ※ 경유노선 일부 조정
 정동풍정(09:05) → 송보아파트(09:07) → 덕진봉아파트(09:09) → 사천여자고등학교[탑마트 맞은편](09:10) → 대홍아파트(09:12) → 한보아파트(09:13) → 월성 한주아파트(09:15) → 월성정류장(09:16) → 푸르지오아파트(09:22) → 사남 면사무소(09:25) → 석거리정류장(09:26) → 평기정류장(09:28) → 용현면사무소(09:30) → 덕산아내아파트(09:31) → 지산마을앞(09:33) → 벽동정류장(09:34) → 남양정류장(09:36) → 수영장(09:45)
- ③ 수영장 출발(11:20) → 수영장 도착(11:57)
 수영장(11:20) → 보람스토아(11:23) → 시외버스터미널(11:25) → 장미아파트(11:26) → 동림현대아파트(11:27) → 풍년슈퍼(11:29) → 목전빌딩(11:30) → 국민사안경(11:32) → 선구동주민센터(11:34) → 해태거리(11:35) → 대방초교(11:36) → 대방사거리(11:39) → 부두주차장(11:42) → 제일약국(11:43) → 우리은행(11:44) → 김영부외과(11:45) → 국민은행(11:47) → 천사약국(11:48) → 경남상가정류장(11:50) → 동금우체국(11:51) → 동금주공아파트(11:53) → 농협하나로(11:54) → 수영장(11:57)
- ④ 수영장 출발(12:00) → 정동풍정 도착(12:50) ※ 경유노선 일부 조정
 수영장(12:00) → 남양정류장(12:10) → 지산마을(12:12) → 덕산아내아파트(12:15) → 용현면사무소(12:18) → 평기정류장(12:20) → 석거리정류장(12:22) → 사남면사무소(12:24) → 푸르지오아파트(12:27) → 월성정류장(12:29) → 월성한주아파트(12:30) → 한보3차아파트(12:32) → 대홍아파트(12:34) → 사천탑마트(12:37) → 덕진봉아파트(12:40) → 송보아파트(12:46) → 정동풍정(12:50)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항공기

부활호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 사천시청에 가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를 만나게 된다.

사천시가 올해 1월부터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부활호를
사천시청 의회동 캐노피 아래로 이전, 전시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전시는 시청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사천시가 항공산업의 메카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시청에 오시면 부활호랑 꼭 인증사진 찍어주세요.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

지난 1953년 10월 사천 공군기지에서 설계·조립·제작된 국산1호 항공기 부활호는 2011년 개량 복원된 것으로 그동안 사천에어쇼(경남사천항공우주 엑스포) 등에서 시범비행 및 전시됐다.

부활(復活)이라는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것으로 한국전쟁 중인 1953년 6월에 대한민국 공군의 주도로 개발이 시작돼 같은해 10월에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초 개발한 군용기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부활호 개발 책임자였던 이원복(예비역 공군 대령) 씨는 부활호의 개발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쟁 중에 미군전투기를 수리할 일이 많았는데 그걸 모두 일본에 가져가서 했거든. 이런 상황인 걸 알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아, 이러다간 일본에 뒤처지겠다’ 싶었나봐. 그래서 부랴부랴 4개월만에 만든 게 ‘부활’호야.”

연락, 정찰, 심리전 등의 다목적 항공기로 개발된 부활호는 1960년대 이후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부활호 개발 책임자였던 이원복 씨(예비역 공군 대령)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념 덕분에 2004년 1월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에서 뼈대만 남은 원형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공군의 주도로 복원작업이 이뤄져 2004년 10월에 복원이 완료됐고 2008년 10월에는 등록문화재 411호로 지정됐다. 경남도와 사천시에 의해 개량복원 사업이 2009년 시작되어 2011년 6월에 2기(비행용, 전시용)가 제작돼 시험비행을 완료했다. 개량복원한 부활호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천에어쇼(경남사천항공우주 엑스포)에서 축하비행을 하는 등 실제비행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 이후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전시 보관됐다. 이는 경상남도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이용한 고유 소형 항공기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형 민간항공기의 최종 조립공장을 설치해 사천시를 동북아시아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을 항공산업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중 전시용으로 제작된 부활호를 사천시에서 항공우주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청사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전시한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 부활호를 전시하여 시청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천시가 항공산업의 메카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 부활호

2 이원복

3 국내 첫 경비행기를 설계한 이원복씨(오른쪽)와 시험 비행을 맡았던 조종사 민영락씨



삼천포 제일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며

삼천포 제일병원

삼천포 제일병원

2020년 1월 17일은 스무살 청년이 되다.

김송자 병원장은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삼천포제일병원 임직원과 기관 단체장, 지역민을 초청하여 “삼천포제일병원을 아껴주신 지역민에게 받은 큰사랑 그대로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2022년에 병원을 신축 완료하여 새로운 병원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년 장기근속한 직원과 병원이 발전하는데 앞장선 우수직원상 등의 포상과 사천시장상 시상,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금1000만원 기탁 등 뜻 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김송자 병원장은 1995년 지역에 제대로 된 소아과 병원이 없던 시절 유수의 병원 과장자리와 대학교수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인 삼천포에 김소아과 의원을 개원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을 위해 불철주야 진료했으며 삼천포지역에 소아 입원실 하나 없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아이들을 안고 온 가족이 진주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고 지역의료시설의 낙후로 인해 제대로 된 검사한번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오랜 숙고 끝에 2000년 1월 17일 지하 1층 지상 6층의 병원을 개원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천지역 뿐만 아니라 고성 남해 하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삼천포제일병원은 개원후 20년동안 병원을 찾는 모든이에게 제약없이 최우선진료를 하기 위해 진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문화 예술인구 저변확대 그리고 소외된 지역민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받는 아프리카 케냐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천포제일병원은 2014년 케냐에 첫 의료봉사를 시작하여 현재 운동화 300켈레 전달, 1만원 후원금 모금사업, 직업학교 설립등 사회교육사업에도 병행하고 있으며, 케냐의 선교사로부터 1만 5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 앞 교량이 무너지고 불어난 물을 건너려는 유치원생 존 루카스(5세)군이 휩쓸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교량 건설비용 전액을 보내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김송자병원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제이카(JCA)'라는 NGO단체를 직접 출범시켰다. '제이씨 아프리카' 라고 부르는 제이카는 'Joy Child Africa'에서 따왔으며 제이카 설립으로 인해 체계적인 전문 복지사업과 개발사업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삼천포제일병원은 봉사 문화를 토대로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섰으며 지역민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나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경남메세나 협회를 통해 삼천포 아가씨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1000만원의 재정 후원을 했으며, 매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금 전달, 2019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에 2000만원을 후원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노인건강강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감장나눔, 어려운 형편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수술비 지원, 초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대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송자병원장의 부모님은 삼천포 남양이 고향이다. 평소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한평생 헌신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을 보시면 일찍 작고하신 아버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실 정도로 어르신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김원장은 "나이들면 관절이 아픈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관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유지할수 있다" 라고 하시며 지역 부모님들에게 청춘을 돌려 드리고 건강한 100세를 누릴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0세 건강을 누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관절의봄날을 위해 2016년 부임하고 난 뒤 제일 먼저 조근호 대표원장을 필두로 해서 관절 척추 센터를 개소 했다.

관절척추센터는 매년 2000건의 무릎, 어깨, 고관절, 허리





등의 수술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청 통영 진주 등지에서도 삼천포제일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조근호 대표원장은 환자본인의 말초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분리를 통해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여 주관절(팔꿈치)의 기능향상과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혈소판이 풍부한 혈장)라는 신 치료술을 도입하여 정형외과 의사들이 꺼려한다는 주관절치료의 선두주자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슬링을 도입한 도수치료센터를 개소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도수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혹시 삼천포제일병원을 내원 해보신적이 있는가? 고객들이 신관1층에 들어와 진료실을 찾아 길을 헤매곤 하신다. 신관 1층이라 하면 대개 주요 진료실을 둔다거나 핵심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마련인데 삼천포제일병원은 2006년 신관을 증축하면서 120여명의 신장혈액투석환자들이 투석할 수 있는 인공신장실을 1층 로비에 두었다. 이는 돈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 무거운 몸으로 신장혈액투석을 하기위해 병원을 내원하는 환우를 위해 주차장에서 10걸음도 떼지 않고 닿을수 있는 곳에 투석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유일 미국(캐나다) CSA 인증등록 및 유럽 CE 공식 인증등록된 정수시설과 HD 혈액투석장비를 설치하여 투석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一笑一少 봄 야유회를 통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투석환우와 오랜 병간호에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신장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혈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부터 삼천포제일병원은 투석환자 혈관 관리를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최첨단 필립스사 베라디우스 유나티 라는 수술용장비와 전동식 침대를 도입했다.

투석혈관의 혈액장애를 일으키는 협착, 폐쇄, 혈전증, 석회화 등의 문제를 혈관속에 얇은 의료기구를 넣어 좁아진 부분을 개통하는 기술이다. 현재 사천은 물론 인근지역에 있는 신장실환우들은 수술을 위해 3~4개월에 한번씩 부산에 있는 혈관외과에 가야만 했다. 인공신장 투석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그동안 투석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장 없는 현상유지는 퇴보와 같다는 생각으로 2020년에 착공해 2022년 봄에 완공되는 심뇌혈관 센터, 암치료센터개설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병실과 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센터의 개설은 김송자 병원장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자들이 골든타임안에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으로부터 해방 되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치료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예방, 조기 진단, 응급의료, 재활 등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제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삼천포제일병원에서 받을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될듯하다.

삼천포제일병원은 “고객이 있기에 병원이 있다는 신념으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올리겠다” 라고 다짐했다.





선 지 당

先
志
堂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서포면 소재지에서 비토섬 방향으로 7,800m를 가면 오른쪽으로 작은 언덕 위에 선지당(先志堂)이 있다. 해평 윤씨 종간공의 25세인 양섭(亮燮·대한차인회 회장) 씨가 조상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사재를 들여 선친이 1946년에 지은 학소재(鶴巢齋)를 중창한 집이다. 선지당은 서인(西人)의 거두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1533~1601) 공이 1578년 서울 청파동에 지은 집이었으나 이곳에 중창하면서 당호로 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선조 임금의 사돈이기도 했던 오음 공은 나중에 3도 체찰사가 돼 거제 장목항 일대에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벌어진 거제대전을 지휘하기도 했다. 후손인 수동(綏東·1764~1812) 공이 하동도호부 부사로 부임하자 작은 아들인 옥열(鈺烈) 공이 '오음 선조의 장구지처(丈古之處)에서 살겠다'며 뿌리를 내려 입향조가 됐다.

퇴계의 문인인 오음은 1558년 문과에 급제했는데 강직한 성품 탓에 여러 차례의 탄핵과 파직, 유배에도 오히려 임금의 신임이 두터워 나중에는 영의정에 오를 정도로 청렴하고 소신 있는 선비였다. 송강 정철의 왕세자 책봉 문제에 연루돼 함경도 회령으로 유배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어영대장에 기용됐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대신들은 선조 임금이 평양성에서 함흥으로 몽진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평안도 영변을 주장해 관철했는데 나중에 함흥이 함락되자 공의 식견에 탄복했다고 한다. 뒤에 의주까지 피신했던 선조가 왜군에게 밀리자 이번에는 요동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때 오음은 '위급할 때 왕이 국내에서 조정을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백성을 저버리는 것이니 불가하다'고 맞서 관철시킨 인물이다. 그 같은 오음이 3도 체찰사로 내려와 남해안 일대를 다녔으니, 장구처에 대한 후손들의 경외심이 대단한 것 같다.

선지당 입구에 서면 중앙에는 대문인 옥천루(綠天樓)가 있고 왼쪽에 옥담(鹿潭)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연못이 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먹고 가도록 배려한 연못이니 사람을 대하는 집주인의 인심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듯하다. 옥천루 양쪽은 작은 방이다. 옛날 같으면 길손이나 하인이 묵는 방이지만 지금은 펜션처럼 누구나 하루를 묵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했다. 누각에 올라보니 멀리 서포 앞바다와 전답이 한눈에 들어왔다.

선지당은 1m가량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지었다. 기둥이나 대들보, 난간 등에 쓰인 목재는 현대식 가공 흔적이 보이지만, 전체는 대목장이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마감했다. 건물 중앙의 오른쪽에 선지당 편액이 걸려있고 왼쪽의 방문 위에는 '충효의 가풍이 이어지는 집안'이라는 뜻의 충효전가라는 서각작품이 걸려 있다. 맨 오른쪽은 두 칸 모두 넓은 대청마루인데 선비가 둘러앉아 시회를 하거나 강론을 하기에 알맞도록 만들었다. 집주인은 이 대청마루를 무대암(無待菴)이라 하고 주로 다담을 즐기는 차실로 사용한다. 맨 왼쪽은 마루를 높여 공로청으로 만들고 이름도 강명정(江茗亭)이라 했다. 오른쪽 대청마루를 제외한 3칸은 모두 방인데 안으로는 모두 통하도



록 만들어졌다. 방마다 안쪽으로는 다락이 있는 별실 구조여서 이부자리를 정돈하거나 책을 보관하는 서고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마당과 담장 주변에는 나무와 꽃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선비의 상징인 매화는 물론이고 치자, 탕자, 모과, 목련, 동백 등 종류를 셀 수 없었고 초본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눈에 띄는 꽃나무는 화왕초제(花王草帝)라 불리는 목단과 파초. 파초는 사찰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드문 종류로 새순이 올라올 때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솟고, 잎이 무성하면 바람에 쉽게 날릴 정도로 부드러워 '대인 춘풍 지기추상'을 좌우명으로 하는 선비가 아낀다. 구한말 순국지사 형제인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심석(心石) 송병순(宋秉琿)이 아꼈다는 파초를 구해와 심었고, 100년 된 탕자나무나 30여 포기 목단, 수백 그루의 치자 등은 선지당의 품위를 더했다.

양섭 씨는 "선지당을 창건한 선조님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5명에게 '선지당 예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며 "선비의 유풍이 남아있고 다술사를 중심으로 하는 효당 선생의 차문화 정신이 살아있는 사천에서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는 충효사상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웅
(사천시 곤명면)

어때요? 항공산업 16탄

해외 동향

- 롤스로이스, 완전 전기비행기 공개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완전 전기 비행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롤스로이스가 지난 26일 영국 글로스터셔 공항에서 개발 중인 전기비행기 공개
 - 롤스로이스 악셀(ACCE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올 봄까지 전기 추진 시스템 통합 작업 진행
 - 악셀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항공 산업을 구현하고 전기추진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악셀 프로젝트 (ACCEL)

- 2030년까지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대체해 전기화하기 위한 롤스로이스의 전략 중 하나로 영국의 항공기술원(ATI), 이노베이트UK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기모터
- 컨트롤러 제조업체인 아사와 스타트업 등 다수의 파트너들이 참여

- 인도네시아, 개발 중인 공격용 무인 드론 첫 공개
 -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제조업체 PTD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과 컨소시엄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군용 무인 드론을 첫 공개
 - ‘을랑 히탐(검은 독수리)’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드론은 테러, 밀수, 해적 행위, 천연자원 약탈 등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 중으로 2024년 최종 완성 목표
 - 현지에서는 드론 생산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을랑 히탐 (Elang Hitam, 검은 독수리)

- 폭 16m, 길이 8,65m, 높이 2,6m
- 시속 235km, 최대 30시간 비행
- 무게 300kg, 미사일 탑재 가능

국내 동향

- 현대차, 2028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서비스 할 것
- 현대자동차, '국제가전박람회(CES) 2020'서 미래 도시 모빌리티 전략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비전*을 발표
 - * UAM-PBV-HUB를 연결해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
 - * UAM은 수직이착륙(eVTOL)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PAV)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서비스
 - * PBV는 지상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가능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 또한,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우버의 항공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한 실물 크기의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인 'S-A1'도 최초 공개



S - A1

- 순수전기비행체(날개 15m, 전장 10.7m)
- 최대주행가능거리 :100km(1회 완충)
- 탑승최대인원 : 5명
- 최대속도 : 290km/h
- 비행가능범위 : 고도1천피트~2천피트

- 국토부에서도 UAM 실현을 위한 기체개발 인증과 운영을 위한 관제 등 인프라 지원 예정
- 국토부,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내용

인바운드 수요 창출	혁신형 산업 지원체계 구축	MRO, 물류 등 연관산업 확장	항공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인바운드 수요유지 지원 • 공항 슬롯 확대 • 항공사간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규제혁신 • 항공금융 활성화 • 공항공사-항공사 동반성장 • 건실한 항공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O 육성 및 LOC 정비지원 • 글로벌 수요맞춤형 항공화물 서비스 체계화 • 스마트공항 고도화 및 중소기업 · 스타트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리스크 관리 • 인적과실 장애 감축 • 취약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항공기 기체결함 대응

- 이로써 사천은 사천공항에서 중정비를 담당하고 국제인증(FAA)를 취득한 MRO업체의 정비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사청, 해외무기 구매시 국내 정비 능력 최우선 고려
- 방위사업청은 해외무기 구매 시 국내 정비 능력을 최우선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로 절충교역* 지침 개정
 - *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
- 무기 구매 시 부품의 일부를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
- 사전 가치 축적 제도* 적극 도입,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대기업의 2배 가치인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일자리창출,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 강화 기대
 - * 사전 가치 축적 제도란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줬다가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제도로 터키와 이스라엘에서도 시행 중

도내 동향

- 하이즈항공, TBAL과 88억원 규모 항공기 부품 계약
- 하이즈항공은 인도 TATA 그룹 계열사인 TBAL(Tata Boeing Aerospace Limited)과 88억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 계약 체결
- TBAL은 인도 대표기업 TATA와 보잉이 2015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기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민항기 사업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 중
- 이번 계약은 하이즈항공의 2018년 매출액 대비 19.2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며, 2020년 세계 3위 항공 시장이 되는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관내 동향

- 사천시, 국산1호 항공기 부활호 전시
- 사천시는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 전시용으로 보관하던 국산 1호 항공기인 '부활호'를 사천시청 의회동 캐노피 아래에 이전 전시
- 부활호는 1953년 10월 최초로 사천 공군기지에서 제작된 다목적 항공기로 1960년대 사라진 후 2004년 부활호 개발 책임자였던 이원복(예비역 공군 대령)씨가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원형을 발견하여 2004년 10월 복원 완료
- 복원된 부활호는 2008년 10월 등록문화재 411호로 지정, 이후 경상남도과 사천시에 의해 개량 복원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2기(비행용, 전시용) 제작
- 사천시는 시청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KAEMS, 제주항공과 B737NG 13대 정비계약 체결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주)(KAEMS)는 제주항공과 오는 2026년까지 7년간 B737NG 13대의 동체, 날개, 배선, 객실 등 기체를 중정비(C-check)하는 장기계약을 체결
- KAEMS는 작년 9월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획득한 후 국내외 입찰에 참여 중이며 에어버스 주력 기종인 A320 계열 항공기 정비 인증 획득 준비 중
- KAEMS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함께 정비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중이라고 강조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온정1, 2, 3길은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온정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사천공항에서 삼천포항 방향 국도 3호를 따라 7km쯤 내려오면 온정사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어떤 술사(術士: 風水地理家)가 된면당(세암 뒤편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산 아래에 펼쳐진 지세를 살펴보니 봉대산에서 뿜어내린 산세(山勢)가 예사롭게 생기지 않아 이 산세의 끝나는 지역에 온천(溫泉)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여 그 곳을 살펴보니 과연 그곳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온정(溫井)”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이 샘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씻으면 피부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원근 각지에서 피부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몰려들어 이 샘물이 불결하다 하여 동네 사람들이 메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온정(溫井)이라는 지명 때문에 7~80년대 온천개발을 하고자 했던 동네이기도 하다.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온정1, 2, 3길”로 하였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영남삼룡(嶺南三龍)

사천시는 일찍부터 충의(忠義)로 이름난 고장이다. 조선시대 선조 25년, 임진년(1592)에 발발한 왜란을 겪을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천 일대의 앞바다에서 활약한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국이 초토화되고, 선조임금은 의주까지 몽진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육지에서 싸운 여러 장수들 중에서 “영남삼룡(嶺南三龍)”, 곧 “영남의 세 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남삼룡(嶺南三龍)”은 《선조실록》, 《임진전란사》, 《국조인물지》 등에 기록된 강덕룡(姜德龍: 1560~1627), 주몽룡(朱夢龍: 1561~1633), 정기룡(鄭起龍: 1562~1622) 세 장군을 가리킨다. 이분들은 주로 영남 산간지역에서 이미 상륙한 왜적 토벌에 주력한 인물로 삼룡장군(三龍將軍)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강덕룡 장군은 진양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함창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진주성 전투에 무기 관리를 맡아 왜병 격퇴에 공을 세웠다. 그 후 경상우병사 정기룡 장군을 도와 성주, 고령, 안립, 삼가 등 지역의 전투에서 승전한 공으로 절충장군이 되었다.

주몽룡 장군도 무과 급제자로 광재우 장군과 더불어 영산성의 적을 공격하여 전승의 공을 세웠고, 훗날 경상좌병사, 경상우병사 등에 임명되었다. 특히 추풍령 전투에서 소수의 군대로 적의 대군을 격파한 것은 《임진전란사》에 길이 빛나는 사실이다. 그리고 권율 장군의 명에 의하여 이순신 장군과 수륙합동작전을 펼쳐 전승의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정기룡 장군 또한 무과 급제자로 곳곳에서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날쌌던 몸으로 온갖 신화를 남기며 왜군 격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왜란 당시 방어사였던 조정 장군이 금산전투에서 왜군에게 붙잡힌 것을 구출하였고, 곤양의

수성장이 되어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는 등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60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육전(陸戰)의 영웅’으로 ‘바다에는 충무공 이순신, 육지에는 충의공 정기룡’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런데 “영남삼룡(嶺南三龍)” 중에서 정기룡, 주몽룡 장군은 본래 사천시에서 배출된 인물이다. 정기룡 장군의 태생지는 옛 곤양군 금양면 중평리이다. 지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하동군 금남면이 되었다. 그리고 주몽룡 장군은 사천시 정동면에서 태어났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동면 동쪽 1.5km지점 청법산 아래 노루목 건너 몽대 마을에서 주몽룡 장군의 부친이 용이 날아드는 태몽을 꾸 후 태어난 사람이 주몽룡이다. 몽대라는 마을 이름도 용꿈을 꾸 집터에서 아기 장군이 태어났다는 일화를 근거한 것이다. 또한 몽대 마을의 뒷산인 천금산(千金山)에서 얻은 보검으로 왜적을 토벌했다는 전설도 예사롭지 않은 지령의 기운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영남삼룡(嶺南三龍)”은 각 지역에서 이분들을 기리는 충렬상이 세워져 지금도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사천 출신이란 것은 사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령은 인걸을 낳는다고 한다. 사천시가 바다로 치우쳐 있는 고장이어서 외부에서는 변경으로 지목하는 사람도 있으나, 백두대간이 내려오다가 멈춘 두류산맥을 접한 내륙으로 이어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늘 하늘이 인걸을 내려 준 고장이다.



이갑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 · 한학자

정보마당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공고

- 응시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기간 : 2020. 01. 15. (수) ~ 2020. 02. 04. (화)
- 접수기간 : 2020. 01. 30. (목) ~ 2020. 02. 06. (목) 09:00 ~ 18:00
- 접수장소 : 사천시청직장어린이집(055-831-2556)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등 불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020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 * 한부모가족 자격(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부 or 모 or 영아)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아동 가정
 -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 판단 시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사천시보건소(055-831-3596)

2020년 상반기 사천시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대상 : 사천시민 누구나, 관내 소재 직장인, 남성도 가능
- 방법 : 사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선착순, 본인인증 후 신청)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 7.(금) / 5일간
 - * 2.3(월) 오전 9시부터 접수 시작
- 수강기간 : 2020. 2. 17.(월) ~ 6. 11.(목)
- 장소 : 사천시 여성회관(사천시 용현면 부곡3길 90)
- 수강료 : 과목당 월(4주) 1만원, 재료비·교재비 별도 부담
- 교육과정 : 22개 과목 440명
- 문의 : 055)831-2145~6

2020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국민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적재가 가능한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 지원으로 섬지역의 원활한 수산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이다.

- 기간 : 2020. 1. 15. (수) ~ 2. 14. (금)
- 방법 : 신청인 직접방문 제출
- 신청기관 : 사천시청(해양수산과)
- 문의 : 055)831-3112

정보마당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 안내

- 대상 : 등록면허세(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간편결제사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 방법 : 간편결제사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혜택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고지서 1장당 150원)
*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 해지 및 열람 · 납부 가능

2019년 11월 사천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명 : 곤명정수장(곤명면 곤수로 127-47), 사천정수장(축동면 수자원길 30)

검 사 항 목	수질기준	결과 (곤명)	결과 (사천)	검 사 항 목	수질기준	결과 (곤명)	결과 (사천)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10 수소이온농도	5.8 ~ 8.5	7.2	6.8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11 증발잔류물	500mg/l이하	84	77
3 불 소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12 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13 탁도	0.5NTU이하	0.10	0.05
5 질산성질소	10mg/l이하	1.1	1.0	14 냄새	이취 없을 것	없음	없음
6 총트리할로메탄	0.1mg/l이하	0.015	0.035	15 맛	이미 없을 것	없음	없음
7 클로로포름	0.08mg/l이하	0.011	0.031	16 할로아세틱에시드 외 10개 항목		불검출및 수질기준이하	불검출및 수질기준이하
8 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0.70	0.86				
9 경 도	300mg/l이하	38	24	17 대장균외 33개 항목		불검출	불검출

아기탄생 축하메시지 운영

- 대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내용 : 아기 이름과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예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oo아, 사랑해~♥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 문의 : ☎055)831-2195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

Culture

2월, 전시
이야기



EXHIBITION



‘산에, 들에’ 최영조 출향작가 전시회

| 기간 | 2020. 1. 31.(금) ~ 2. 16.(일) [17일간]

| 장소 | 사천문화재단

- 참여작가 : 최영조 (1947~)
- 출 신 지 : 사천시 사천읍 두량 1리
- 활동지역 : 부산광역시
- 학 력 : 사천중학교 17회 졸업
- 출 신 지 : <2019 최영조 개인전> 외 8회
- 전시부문 : 회화
- 전시내용 : 시골에서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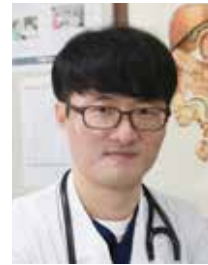
가을 (45.5 x 37.9cm oil on canvas)



봄소식 (45.5 x 33.4cm oil on canvas)



겨울철 심혈관 질환 주의보



배동운 부원장
삼천포서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때, 뉴스를 보면 가끔씩 동반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로 50, 60대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원인의 80~90%가 심장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은?

가슴통증은 가슴중앙 내지 좌측 가슴에서 발생되고 쥐어짜는 통증, 갑갑하고 답답함, 찌릿 찌릿한 통증이 발생되며 2분 이상 안정하고 휴식을 취하면 이러한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가슴통증이 너무 심하면 식은땀을 줄줄 흘리게 되고 이 통증들이 등이나 목, 턱, 왼쪽 어깨, 팔로 번지기도 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호흡곤란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갑자기 발생하였다면 협심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산행도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산행을 멈추고 눕거나 앉아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증상이 없어지면 그 때 하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혈관 질환 Check list

- 이유없이 코피가 자주 난다.
-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호흡이 곤란하다.
- 현기증이 나고, 실신을 한다.
-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에 창백 빛이 돈다.
- 두통이 자주 온다.
- 왼쪽 어깨에 통증이 온다.
-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기력이 없다.

통증이 5~10분 이상 지속되면 하산을 포기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며, 가능한 빨리 119 또한 산악구조대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운동과 산행은 심장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대부분은 운동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운동이나 산행 도중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사전에 협심증을 의심해 보거나 더 조기에 진단하게 되므로 치료 또한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산행도중에 찾아오는 가슴통증, 호흡곤란을 가볍게 넘기거나 방치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며 70~80%는 몇 달, 몇 주 또는 몇 일전부터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슴통증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짐

이용호 (향촌동)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사천 SNS서포터즈
우리시의 얼굴이며 홍보역군으로서
관광은 물론 시정과 사천사람들 이야기를 엮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사천사랑 무안애정의 소유자들

나도 사천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30년째
나름 삼치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터.
바람맛이 참 곱고 감칠맛 나는 사천을
세상속으로 퍼 나르는데 밀알이 되고 싶어
서포터즈의 행렬에 몸을 던진다

항구의 진한 삶이 육수처럼 우러나고
우주항공의 미래가 용광로처럼 들끓는
이 천지개벽할 와룡의 기운을 어찌 잠재워 둘 수만 있겠는가

맛과 멋과 끼가 넘치는 사천
그 진원지에 서린 희로애락을
찰지고 쫄득한 애깃거리로 반죽해서
저 부활호 웅비의 날개에 실어 방방곡곡 전해 주려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항공수도 사천이
하늘로 바다로 그 영역을 넓히어
사람 사는 행복수도가 되길 갈망한다.



2020년 제5기
SNS서포터즈 이용호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남면

이지원('19. 12. 23.)

지원아,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사랑해 ♡



아빠 이동혁 ♡ 엄마 황소영

강하린('19. 12. 28.)

하린아, 건강하게 태어나 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



아빠 강호민 ♡ 엄마 유호정

사천읍

장아윤('19. 06. 25.)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윤아 사랑해 ♡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 장주영 ♡ 엄마 이지숙

용현면

이러원('19. 10. 17.)

우리집 다섯째 이러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아빠 이상효 ♡ 엄마 하미환

김다울('19. 12. 18.)

사랑하는 우리 다울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길 바란다
다울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바른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



아빠 김준우 ♡ 엄마 이민주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수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 (☎831-2195)